

초등 5학년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그해 유월은

신현수 글 | 최정인 그림

스폰북

### 교안 개발: 허니에듀

★허니에듀는 ‘공부가 꿀처럼 달콤한 세상’을 꿈꾸는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유·초등 청소년 교육커뮤니티 ‘허니에듀’와 멤버십 서비스 ‘허니에듀 북클럽’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허니에듀 밴드 : [band.us/@honeyedu](http://band.us/@honeyedu)
- 허니에듀 카페 : <http://cafe.naver.com/honeyedu>



# 그해 유월은

- ★ 글: 신현수
- ★ 옮김: 최정인
- ★ 출판사: 스폰북
- ★ 정가: 12,000원
- ★ 분량: 214쪽
- ★ 대상: 초등 고학년
- ★ 교과 연계: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 ★ 책 소개

### 12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전쟁 이야기

서울에 살고 있는 12세 종희는 친구인 분이, 필남이와 '우정의 숲'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벌어지자 종희의 아버지와 오빠는 전쟁터에 끌려가고, 피난길에서 폭격을 맞아 할머니와 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함께 피난을 떠난 엄마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희는 외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과연 종희는 혼자서 어려움을 뚫고 외가에 도착해 그리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 주요 독후 활동

### 그해 유월은

#### 책 속으로

- ① 피란길에서 일어난 일
- ② 전쟁과 아이들
- ③ 희망과 다짐

#### 토론&논술

- ① 남북통일, 꼭 해야 할까?
- ② 종희야, 석이 오빠! 잘 지내?  
- 등장인물의 편지 쓰기

#### 창의융합

- 나는 전쟁에 반대한다  
- 반전 포스터 만들기



# 독서 전

① 제목, 표지, 머리말 살피기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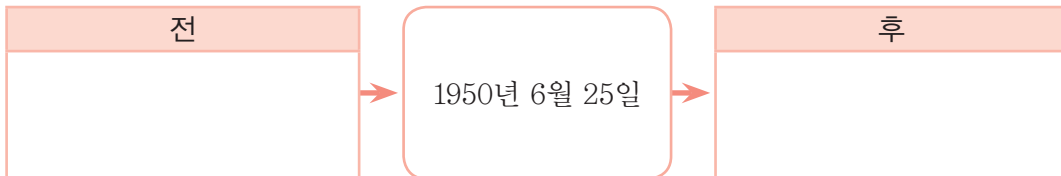
1 《그해 유월은》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1	
2	
3	

(2~3) 《그해 유월은》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분명 며칠 전까지 ‘우정의 숲’에서 놀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  
 누구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누구는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지.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못 보게 되기도 했고,  
 1950년 6월 25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거든.  
 ㉠그해 유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 뒷글을 읽고, 1950년 6월 25일의 전과 후로 주인공의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3 ㉠을 읽으며, 책 속에서는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예상해 보세요.

-----



# 독서 전

② 배경지식 알아보기

※ 《그해 유월은》은 6.25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며 6.25 전쟁의 과정을 알아 봅시다.

① 북한군의 진격(1950.6.25.)

상황도	주요 사건
	<p>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 )은 38 도선 전 지역에서 총공격을 시작했다. 그 전에도 38 도선 부근에서 종종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38 도선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했다. 북한군과 전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 )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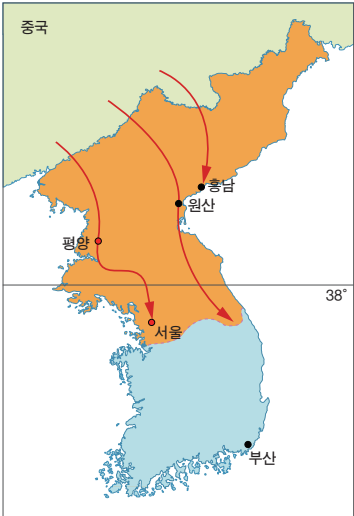
② 유엔군의 참전(1950.7.17.)

상황도	주요 사건
	<p>이승만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은 빠르게 남한에 군대를 보냈고, 유엔을 움직여 유엔군도 보냈다. 미군이 개입했지만 남한군과 미군은 ㉢( )까지 밀렸다. 9월 15일 새벽, 미군이 '㉣( )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9월 28일에는 서울을 되찾았다. 1950년 10월 1일 북진을 시작한 남한군과 유엔군은 10월 20일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 압록강에 이르렀다.</p>




## 독서 전

### ③ 중공군의 개입(1950.10.25.)

상황도	주요 사건
	<p>㉠( )까지 밀린 북한군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자, 중국은 18만 명의 중공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12월 10일 ㉠( )이 다시 중공군의 손에 들어갔고, 1951년 1월 서울이 다시 북한군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나 남한군과 미군은 우월한 무기를 앞세워 다시 북한군을 몰아붙였고, 3월 5일에 서울을 되찾았다.</p>

### ④ 38 도선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전투(1951.3. ~ 1953.7.27.)

상황도	주요 사건
	<p>1951년 3월, ㉡( ) 도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남북한은 물론 미군이나 중공군 모두 휴전의 필요성을 느꼈다. 2년 동안 계속 휴전 회담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에도 산봉우리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전의 전투에 비해 이 시기의 전투가 가장 치열해서 사망자도 많았다.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맞서 싸우던 전선은 ㉢( )이 되었다.</p>



#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내용을 생각하며 책 읽기

-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했던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 《그해 유월은》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어느 부분이 인상적인가요?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p>예 48쪽</p> <p>엄마는 봉숭아꽃을 따서 백반을 넣고 콩콩 찢어 내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 주었다.</p> <p>“이렇게 콩콩 묶어 놔야 꽃물이 예쁘게 든단다.”</p> <p>봉숭아꽃을 손톱 위에 얹고 잎사귀로 싸 다음 무명실로 콩콩 묶어 주며 엄마가 말했다.</p>	<p>‘나(종희)’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p>





# 독서 후

책 속으로\_① 피난길에 일어난 일

※ 다음은 '나종희'가 피난길에서 겪은 사건의 중심 장면을 뽑아낸 것입니다. ①~⑥까지 각각의 중심 장면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 독서 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49쪽] 하지만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지금 내겐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엄마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영영 고아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뿐이었으니까.

내 속을 들여다본 듯 빠드렁니가 쓸쓸한 말투로 말했다.

“하긴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든 내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래 지금은 고쳐 고향 집으로 살아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네. 우리 오마니랑 동생들을 만나는 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으니까네…….”

나는 빠드렁니와 내 소망이 같다는 걸 비로소 알았다.

(나) [176~177쪽] “그카더이 우리 아버지랑, 지서장 아재랑, 죄다 손발 묶어 끌고 가 인민재판이라 카는 거를 열어서 총으로……. 우리 어무이는 아버지를 살려 달라 카다가 그만…….”

순임이 이야기가 내 귀엔 하나도 설지 않았다. 서울서 보고 겪었던 일과 너무도 똑 같았기 때문이다.

“인민재판 하믄서 사람들 막 죽일 때 기철이 아버지가 젤루 앞장섰데이. 나는 발 발 떨다가 그 자리에 까무라쳤구. 맏딸인 내가 까무라치모 안 되고 어무이를 구했어야 하는데 몬 그랬데이. 우리 집이 불탔을 때도 나는 막넛동생 미림이 텔구 나오느라 할매랑 탄 동생들을 몬 구했데이……. 나두 기철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안다. 글치만 기철이가 싫고 말 한마디도 섞기 싫다. 그런데 종희야, 내는 국군도 무섭드라. 나중에 국군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붉은 완장 차고 설치고 다닌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거든. 인민군들이나 국군이냐 무섭긴 매한가지드라고.”

**1** (가)에서 ‘나(종희)’와 ‘빠드렁니’의 같은 소망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

**2** (나)에서 ‘순임’이 전쟁통에 겪은 일들을 써 보세요.

① 가족들에 일어난 일: -----

② 국군이 한 일: -----

**3**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써 보세요.



# 독서 후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90쪽] “니 손톱에 봉숭아물 곱게 들였드라. 어무이가 들어 줘나? 내도 해마다 어무이가 들어 줘는데, 올해는 못 들였데이……. 봉숭아물은 이쁘기도 이쁘지만 나쁜 걸 물리쳐 준다 카대……. 내년에는 내가 우리 미림이, 봉숭아물 들어 줄 까다.”

그리고 보니 내 손톱엔 빨간 봉숭아물이 아직 반도 넘게 남아 있었다. 어찌면 순임이 말처럼, 엄마가 들어 준 봉숭아물이 여태 나를 지켜 줘는지도 모른다. 손톱의 봉숭아 꽃물이 다 지기 전에 엄마와 아버지를, 그리고 식구들을 꼭 만나고 싶었다.

(나) [211~214쪽] 국군이 평양까지 들어갔다면, 어찌면 전쟁이 곧 끝날 것도 같았다.

‘그러면 아버지랑 오빠도 곧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분이랑 필남이도 만날 수 있겠구나. 삼촌이랑 말자 언니도…….’

높고 파란 늦가을 하늘엔 뭉게구름이 둥실 떠가고 있었다. 전쟁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말끔한 하늘이었다.

그리고 내 손톱엔 엄마가 들어 준 봉숭아 꽃물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하모니카를 손에 쥐고 달려가며 속으로 빌었다.

‘봉숭아 꽃물이 지기 전에 이 끔찍하고 무서운 전쟁이 끝났으면…….’

1 (가)와 (나)에 나타나는 ‘봉숭아물’의 의미와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써 보세요.

	(가)	(나)
의미		
생각하는 까닭		

2 자신이 이 글의 ‘나(종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 보세요.

종희에게



# 독서 후

※ 다음은 남북통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입니다. 두 주장을 참고하여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 ▣ 찬성 주장

첫째, 우리는 원래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민족이 아니라 냉전 때문에 분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합해야 한다.

둘째, 남한의 풍부한 식량,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미개발 토지, 노동력이 결합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셋째,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나라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방비 지출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

### ▣ 반대 주장

첫째, 남한과 북한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60여년 이상 다르게 살아온 환경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대립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하는 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 남한이 북한에 해야 할 경제적인 지원 때문에 경제에 많은 부담이 생기게 된다.

셋째,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사회 구조 때문에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남북통일, 꼭 해야 할까?

찬성 (남북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 (남북통일을 꼭 이루지 않아도 된다.)



# 독서 후

토론&논술 ② 종희야, 석이 오빠! 잘 지내?

※ 《그해 유월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종희와 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종희와 석이가 되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써 보세요.

**1** 엄마를 만나 외가에 도착한 종희가 석이 오빠에게 편지를 쓴다면?

.....  
.....  
.....  
.....  
.....  
.....  
.....  
.....  
.....

**2** 종희의 편지를 받은 석이 오빠가 되어 답장을 쓴다면?

.....  
.....  
.....  
.....  
.....  
.....  
.....  
.....  
.....



# 독서 후

창의융합\_나는 전쟁에 반대한다

※ 다음은 지구종말시계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해 유월은》의 내용과 다음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1947년 ‘7분 전’으로 시작했던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가 작년 ‘2분 전’에서 ‘100초 전’으로 당겨졌다. 지구종말시계는 핵 위협과 기후 변화로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년 전에는 2분 전이었으나 이제는 측정 단위가 초 단위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1947년 지구종말시계가 생긴 이래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이다.

이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1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100초를 남겨둔 지구종말시계를 공개했다. 핵과학자회는 시간이 줄어든 이유로 지난해 핵무기 관련 여러 군축 협정과 협상의 중단 및 악화, 이란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의 미해결과 악화를 들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향상됐으나 세계 각국 정부의 조치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지구종말시계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한 1953년에는 ‘2분 전’까지 갔다가 미소 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된 1991년에는 ‘17분 전’으로 늦춰지는 등 매년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이듬해 1월 지구종말시계가 ‘2분 30초’에서 30초 당겨지기도 했다.

1 다음 항목에 따라 포스터 만들 계획을 세워보세요.

① 핵심 문구는 뭐라고 쓸까?	
② 어떤 내용을 담을까?	
③ 어떤 사진(또는 그림)을 넣을까?	



## 독서 후

**21**에서 세운 계획에 따라 핵심 문구, 본문 글과 사진 또는 그림을 넣어 전쟁 반대 포스터를 그려 보세요.

## 책 한 권을 보는 다양한 시각, 즉 독서력과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어사모)회원사와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들이 모여 1년에 2회, 대략 60종의 독서 지도안을 만듭니다. 독서 지도안은 아이들 책을 가장 잘 아는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가 추천한 도서를 토대로 장르별로 선별해 만든 것입니다. 독서토론논술 지도안으로 독서 활동을 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거나 간추리는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 명의 독서 교육 전문가가 독후 활동 주제망으로 핵심 단어를 뽑은 뒤, '독후 활동 시작하기 → 독후 활동 주제 1 → 독후 활동 주제 2 → 독후 활동 주제 3'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을 제시합니다. 이 독후 활동 단계를 경험하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작품에는 없는 새로운 독후 활동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각의 독서 지도안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독서력과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30편의 독서 지도안 중에 좋은 책을 골라 2018년 국어 교과서에 새롭게 신설된 『독서 단원-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책사랑모임 &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

### 고학년용을 위한, 적당한 양의 글과 멋진 삽화가 담긴 책

no	대상	출판사	제목	글	그림	번역
1	5학년	스픈북	그해 유월은	신현수	최정인	
2	5학년	아이앤북	나는 투명인간이다	박성철	정진희	
3	5학년	내일을어는책	나를 쫓는 천 개의 눈	서석영	주성희	
4	5학년	크레용하우스	내 친구에게 생긴 일	미라 로베	박혜선	김세은
5	5학년	키위북스	내가 진짜 흥길동이다!	허윤	이경석	
6	5학년	뜨인돌어린이	땡기머리 탐정 김영서	정은숙	이영림	
7	5학년	마음이음	복희탕의 비밀	김태호	정문주	
8	5학년	책내음	빨간 구두 춘맹 씨	윤미경	장선환	
9	5학년	리틀씨앤독	언제나 3월 1일	장경선	신민재	
10	5학년	천개의바람	여기는 따로섬 경제를 배웁니다	원예지	유설화	
11	5학년	노란돼지	역사 탐험대, 일제의 흔적을 찾아라!	정명섭		
12	5학년	미래아이	인류만이 남기는 흔적, 쓰레기	박상곤	이경국	
13	5학년	킨더랜드	소문 바이러스	최형미	이갑규	
14	5학년	고래가숨쉬는 도서관	지구는 개가 지킨다	최서현	모예진	



